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양성 불평등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 - 한-러 팬 번역 중심으로 -

김주은*

Joeeun Kim (2025). Gender Inequality Expressions in Korean Media and Their Russian Translations: A Focus on Fan Trans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gender-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Korean media content are rendered in Korean-Russian fan translations and evaluates the extent to which the translated expressions convey the original intent and emotional tone. The dataset consists of dramas and films released between 2013 and 2024, and the types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were systematically classified based on Cho Tae-rin (2006). The findings reveal that terms such as ajumma are often neutralized or distorted in translation, resulting in the loss of the original discriminatory nuances. Furthermore, the unofficial nature of fan translations leads to inconsistent translation quality, while cultural differences frequently hinder the accurate transmission of meaning.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nhance translators' cultural competence and linguistic proficiency through education and to establish a systematic translation review process. Overall,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ranslation studies, cultural studies, and linguistics by identifying key issues in translating discriminatory expressions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the global dissemination of Korean cont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Gender inequality, discriminatory expressions, korean-russian fan translation, hallyu content, cultural translation

주제어: 양성 불평등, 차별적 표현, 한-러 팬 번역, 한류 콘텐츠, 문화적 번역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1. 서론

최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디어와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차별적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다. 이에, 영화사와 방송 프로그램 등 주요 미디어에서 차별적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차별적 표현은 단순한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해당 사회가 공유해 온 고정관념과 문화적 배경이 함축된 표현이기에, 적절히 번역하여 전달하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기획과 제작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측면의 현지화, 즉 번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언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밀한 뉘앙스까지 현지어로 제대로 재현되어야 한다(박지영 2022). 하지만 한국 미디어 콘텐츠에 등장하는 한국어의 차별적 표현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조사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의 자막과 더빙 번역 문제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특히, 영화 <기생충>(2019)의 성공적인 번역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언급된다.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 영화의 자막 번역을 담당한 번역가 달시 파켓(Darcy Paquet)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영어로 적절히 번역함으로써,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데 숨은 공로를 세웠다. 반면, 러시아와 CIS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오징어 게임>(2021)은 영어 자막 및 더빙 과정에서 원문에 등장하는 비속어 표현이 완화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이가현 2022). 어조를 약화시키는 번역 방식은 캐릭터의 말투와 감정 표현이 희석되고, 결과적으로 원문이 지니는 사회적 맥락과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번역을 통해 원문의 어조가 약화되는 양상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번역에서도 발견된다. 안희연과 김보영(2021)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의 아랍어 번역 자막에서도 한국 문화적 요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일부 오역과 누락이 발생했다. 특히 아랍어 번역의 경우 영어 자막을 기반으로 중역되었다는 점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영어를 경유해 러시아어로 번역되는 러시아어 팬 번역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서유경 2020). 대중문화 콘텐츠의 번역 오류는 단순한 언어적 차이를 넘어 문화적 의미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나타나는 양성 불평등 차별적 표현이 한-러 팬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된 표현이 원작의 의도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며 변형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문화적 차이와 번역학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팬 번역이 차별적 표현을 다루는 방식과 그 영향력을 고찰하여 번역학, 문화연구, 언어학 분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차별적 표현 자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차별적 표현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한-러 번역에서 사용된 번역 전략과 번역 결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국어의 차별적 표현은 언어 고유의 정서와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 어렵다. 한류 콘텐츠의 번역이 원문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외국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적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리고 번역된 표현이 원작의 의미와 감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분석하여 번역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양성 불평등 차별적 표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둘째, 한-러 팬 번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양성 불평등 차별적 표현은 어떻게 번역되는가? 셋째, 차별적 표현의 번역 과정에서 어떤 번역 전략이 사용되며, 번역된 표현이 원작의 의도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통해 한국 미디어 콘텐츠 번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의 유형과 해당 번역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문화의 해외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성차별 표현의 특성과 유형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어 차별적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차별적 표현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과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며 언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차별적 표현은 명시적 욕설뿐 아니라 특정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특정 행위를 특정 성으로 한정

시키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된다(조태린 2011).

조태린(2006)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양성 불평등 표현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나 표현으로, 기혼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이줌마’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미혼모’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남성에게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

둘째,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여대생’, ‘여배우’, ‘여승무원’과 같이 특정 직업이나 역할을 지칭할 때 굳이 여성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성의 성별을 불필요하게 부각시킨다.

셋째, 여성의 성적 및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 ‘처녀작’이라는 표현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성을 의미하는 ‘처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의 성적 상태를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넷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시집가다’, ‘집사람’, ‘안사람’ 등은 여성을 가정 내 역할로 한정 짓는 표현이다. 또한, ‘남매’, ‘부모’, ‘자녀’와 같이 남성을 먼저 지칭하는 표현도 포함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외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도 있다. 예를 들어, ‘계집애’, ‘여편네’, ‘가시나’와 같은 표현들은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차별적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명백한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본 연구는 조태린(2006)이 제시한 위 네 가지 유형을 토대로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고, 한국어의 차별적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차별적 표현이 번역 과정에서 어떤 번역 전략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전략의 선택이 원문이 지닌 감정과 의도 재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2. 차별적 표현의 번역과 번역 전략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사회에서 사용되는 차별적 언어 표현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경(2018)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 차별 언어 표현을 비교하여 양국의 여성 호칭어, 속담, 공공 매체 언어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이 유교 전통과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아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조경 2018). 이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번역에서도 차별적 표현의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차별적 표현이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차별적 표현이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은아(2022)의 연구는 혐오 표현과 성차별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이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았다(이은아 2022). 이러한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 차별적 표현이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젤나와 김영국(2024)의 연구는 직장 내 성적 면지 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이 여성 직원의 업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성적 면지 차별 분노 반추, 장기 방어적 양가성, 관계 관여적 양가성, 반생산적 업무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차별적 언어 표현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차별적 표현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차별적 표현에는 특정 문화와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의도와 감정이 완벽하게 재현되기는 어렵다. 차별적 표현의 번역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번역 과정에서 차별적 표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희(2021)의 연구는 의미론 개론서에 나타난 여성 차별 언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교과서와 대학 교재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조사하여, 남성중심적 언어 사용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 역할 고정관념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이주희 2021). 이는 번역사들이 번역 과정에서 양성 불평등 표현을 민감하게 처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승혜와 김순영(2021)의 연구는 북한 소설 『고발』의 영역본에서 여성 재현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번역 목적에 따라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번역 독자가 번역본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번역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마승혜와 김순영 2021).

허용과 박은정(2020)의 연구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역번역문에서 양태 표현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역번역 과정에서 나타내는 양태 표현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허용과 박은정 2020). 이는 번역사들이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차별적 표현이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적 표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러 번역에서 차별적 표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분석하고, 번역 과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3. 한-러 번역에서의 문화적 차이

번역 과정에서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은 번역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접근법이다. 자국화는 번역문이 목표 언어와 문화에 잘 맞도록 원문을 조정하는 방법이며, 이국화는 원문의 이질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여 독자에게 낯선 느낌을 주는 번역을 지향한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언어 간의 번역에서 특히 중요하다(Venuti 1995). 차별적 표현의 번역은 이 두 전략의 균형을 요구한다. 차별적 표현을 약화시키거나 삭제하는 번역 전략을 사용한다면, 원문의 사회적 메시지나 의도가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수용자들의 이해가 낮아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팬 번역에서는 번역가의 자의적 판단과 문화 이해도에 따라 차별적 표현의 번역 전략이 달라지고, 번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과 러시아 간 번역에서 문화적 차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의 차이는 번역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어는 더욱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조경 2018). 번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문화적 고유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은 러시아어로 번역될 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라는 한국 속담은 러시아어로 직역할 경우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러시아 속담으로 변환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자국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이다(송현정 외 2020).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의 차이 또한 번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적은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자주 언급된다. 예를 들어, 한국 뉴스 기사에서는 ‘여성 부사관’이나 ‘남자 간호사’와 같은 성별 정보가 포함되지만,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정젤나와 김영국 2024). 번역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명한 음식인 ‘삼겹살’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단순히 ‘돼지고기’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삼겹살의 조리법과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해당 문화를 이해하고 번역문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오유진 외 2024).

원문의 의미와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의도와 목표 독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번역 전략 선택이 중요하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 번역에서 원문의 문화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국화 전략과 독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번역하는 자국화 전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이주희 2021). 이처럼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 번역에서의 문화적 차이는 번역 전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번역가들은 원문과 번역문의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번역문의 질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변환하는 작업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한다(김영한 외 2020).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작품은 2013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2016년 tvN 드라마 <도깨비>,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2023년 SBS 드라마 <7인의 탈출>, 2024년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년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다. 먼저 각 작품의 전 회차(또는 전 편)를 시청한 뒤, 이 가운데 양성 불평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실제로 등장하는 회차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영화 <기생충> 1편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눈물의 여왕>, <7인의 탈출>은 각각 1회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6회분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팬 번역 자료는 러시아어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무료 영상 스트리밍 기반 플랫폼 Newdeaf, Zetflix, Dorama와 러시아 SNS 기반 번역·자막 공유 커뮤니티인 VK(ВКонтакте)에서 수집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표적 채널로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팬 번역본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된다. 팬 번역의 특성상 번역가는 여러 플랫폼에서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익명으로 활동하며, 번역가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개별 번역가의 신원이나 정확한 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역가에 관한 분석 대신 러시아어 번역에 대한 언어적 특징과 번역 전략 자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자료 분석은 각 드라마와 영화의 영상을 재생하면서 차별적 표현이 담긴 한국어 대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일시 정지하여, 해당 장면의 한국어 원문 대사와 러시아어 팬 번역 자막을 모두 전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사된 자료는 작품명, 회차, 시간, 한국어 원문 대사, 러시아어 번역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기준은 조태린(2006)이 제시한 양성 불평등 표현 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칭·표현, 여성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여성의 성적·신체적 특성을 부각하는 표현,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 중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칭·표현’을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명칭·표현’으로 재명명하여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 중심적 표현도 차별적 표현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번역 사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본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정리하자면, 조태린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명칭·표현, 2) 여성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3) 여성의 성적·신체적 특성을 부각하는 표현, 4)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으로 차별적 표현 추출 기준표를 설정했다.

텍스트 분석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과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내용 분석은 먼저 전사된 대사 중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 대사를 1차로 추출했다. 이후 각 표현을 유형화하고, 해당 대사의 러시아어 번역에 사용된 번역 전략을 추가로 기록하였다. 번역 전략 분석을 위해 번역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약화, 중립화, 생략, 의미 유지, 음차 번역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담화 분석은 차별적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과 인물 관계를 고려하여, 번역에서 원문의 감정과 사회적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지 살펴보았다. 앞뒤 대사와 장면을 검토하여 작품 내 인물 관계를 고려하고, 러시아어 번역에 사용된 표현과 번역 전략을 분석한다. 러시아어 번역을 분석한 후에 사용된 번역 전략에 따라 원작의 의도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이주희 2021).

4. 분석 결과

4.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명칭·표현

한류 콘텐츠에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나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성별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나 표현의 번역 사례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발견된다(표 1).

표 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명칭·표현의 번역 사례

ST(Source Text)	TT(Target Text)	BT(Back-translation)
어머, 우리 아줌마네요. (기생충, 2019)	О, это же наша домоправительница.	어, 이 사람 우리 가정부잖아요.
아줌마 지금 나간 거지? (기생충, 2019)	Где домоправительница?	가사 도우미 어딴어?
그래도 아쉽긴 아쉽죠. 상당히 괜찮은 아줌마였거	Но всё равно жаль. Отличная	하지만 아쉽죠. 훌륭한 가정부였어요.

든 그 양반이. (기생충, 2019)	была домоправительница.	
제가 이해 못 하겠는데요. 아줌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Но я их не понимаю. аджумма.	근데 저는 이해 못 해요. 아줌마.

‘아줌마’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종종 나이 든 여성이나 낮은 직급의 여성을 낮잡아 부를 때 사용된다. 특히 해당 단어는 에이지즘(ageism)과 성차별이 결합한 형태로, 가사 도우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로 쓰인다. 이는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나 표현의 번역 사례의 영화 <기생충>의 대사에서 발견된다. 대사에서 ‘아줌마’를 러시아어로 ‘가사 도우미(домоправительница)’로 번역하여 원문의 차별적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는 주인공이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갈등이 심화되는 순간부터 ‘아줌마’로 부른다. 한국어에서 ‘어머니’는 예의를 전제한 호칭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반면 ‘아줌마’는 상대를 비(非)친족 여성에게 쓰는 말로, 이 표현에는 무례함, 중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의 나이를 대상화하는 성차별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이 장면이 단순히 ‘아줌마(аджумма)’로 음차되어 번역된다. 음차 번역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러시아어권 시청자는 한국 중년 여성에게 특정한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를 부과하는 차별적 함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 운전기사에게는 ‘김 기사님’이라는 존칭이 사용된다(표 2). 이는 성별에 따른 명칭 사용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아줌마’로 부르는 반면, 운전기사를 ‘김 기사님’으로 부른다. 이 경우, 러시아어 번역에서도 ‘미스터 김(Господин Ким)’으로 번역되어 원문의 존칭이 유지된다. 이러한 번역 사례는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명칭 사용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표 2. '기사님' 번역 사례

ST	TT	BT
김 기사님이라고 점잖고 워낙에 푸근하셔서. (기생충, 2019)	Господин Ким. Он был такой добрый.	미스터 김이라고. 엄청 친절하셨습니다.

표 2와 같이 차별적 표현은 여성에게만 특정한 역할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줌마, 여배우, 여직원’ 등의 표현은 성별에 따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 역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번역 사례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눈물의 여왕>, <7인의 탈출>에서 발견된다(표 3).

표 3.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번역 사례

ST	TT	BT
이래서 계집애들은 3 일에 한 번씩 밟아줘야 한다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Вот почему женщин ну жно ставить на место к аждые три дня.	바로 그래서 여자들을 3 일마다 제대로 고쳐줘야 한다니까
아무튼 너는 그런 불여씨 같은 계집애 싹 다 잊고, 맘 편히 살면 되는 거고. (눈물의 여왕, 2024)	забудь про эту хитрую лису и живи счастливо.	그런 영악한 여우는 잊고 행복하게 살아.
그만 못해? 이 시장통 여편네야? (7 인의 탈출, 2023)	МОЖЕШЬ ОСТАНОВИТЬСЯ, чокнутая гримза?	그만해. 정신 나간 여자야.

첫 번째 사례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는 ‘계집애’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원문에서 사용된 ‘계집애’는 여성에 대한 모욕적 의미가 강한 표현이지만, 러시아어 자막에서는 ‘여자(женщина)’로 옮겨졌다. ‘женщина’는 단순히 성별을 지칭하는 중립적 명사이므로, 원문에 담긴 공격성과 멸칭의 어조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러시아어 안에서 ‘계집애’와 뉘앙스가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를 찾기 어려워,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번역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가 약화되며 원문의 적대적 정서와 인물 간 위계관계는 상당 부분 희미해졌다.

두 번째 사례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확인된다. 원문에는 ‘계집애’와 ‘불여시’가 동시에 사용되어 인물에 대한 모욕과 비난이 겹쳐 나타난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계집애’가 완전히 삭제되고 ‘불여시’만 러시아어 ‘хитрая лиса(영악한 여우)’로 옮겨졌다. ‘여우’에 대한 부정적 함의는 러시아어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번역가는 원문에 등장한 동물 비유를 러시아어 화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한 셈이다. 그 결과, 한국어 원문이 지닌 비하적 표현의 강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인물에 대한 공격이 하나의 표현으로만 전달되면서 원문이 가진 비하 어조의 폭은 줄어들었다.

세 번째 사례는 드라마 <7인의 탈출>에서 ‘여편네’를 ‘정신 나간 여자(чокнутая гримза)’로 번역한 경우다. ‘гримза’는 러시아어 사용 환경에서도 뚜렷하게 비하적 의미를 띠는 표현이다. 원문의 적대적 태도와 조롱의 톤이 번역문에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례에 비해 원문 감정의 강도가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세 사례를 종합하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은 첫 번째 사례, ‘계집애’에서 ‘여자(женщина)’로 번역되며 중립화되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계집애’가 삭제되었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여편네’를 ‘정신 나간 여자(чокнутая гримза)’로 번역하며 의미적 등가를 가진 러시아어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번역 전략 선택 이전에, 목표 언어에 동일한 표현과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괜 번역 환경 특성상 번역 속도가 빠르고 검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도 표현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원문이 담고 있는 공격성, 모멸감, 계급적 위계 인식이 러시아어 독자에게는 약화된 형태로 전달되거나 맥락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4.2.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러한 표현이 러시아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의 차이나 전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성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직업명 앞에 ‘여’를 붙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의사, 여배우, 여직원’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

별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직업에 대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여성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양성 불평등 표현은 번역에서 원문의 의도를 정확히 재현되는지가 중요하다.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의 번역 사례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발견된다.

표 4.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의 번역 사례

ST	TT	BT
이렇게 예쁜 여직원이 꽃 역할을 해줘야 일할 맛이 나거든. 응?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Разумно нанимать симпатичных девушек. Это делает работу более увлекательной, не так ли?	예쁜 아가씨를 고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나 여배우거든요. 오밤중에 낮선 남자랑 응급실 왔다 얘기 나가면, “임신했다, 자살기도 했다” 별의별 소문 다 나간다고요. (별에서 온 그대, 2013)	Я- актриса. Если информация, что я пришла в неотложку посреди ночи с мужчиной просочится.. «Она беременна! Это самоубийство!». По ползут слухи такого рода.	저 여배우거든요. 한밤중에 남자와 같이 응급실에 왔다는 정보가 새어 나간다면, “임신이다! 자살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다고요.

첫 번째 사례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대사로, 러시아어 번역에서 ‘여직원’이 ‘젊은 여성(девушка)’으로, ‘예쁜’은 ‘호감 가는(симпатичных)’으로 번역되면서 원문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전달되기는 하나, 표현의 강도는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어 형용사 ‘симпатичный’는 외모 기반의 호감도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대사는 여성을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외적 매력으로 평가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어지는 “이를 통해 일이 더 즐거워진다”라는 대사는 여성의 외모가 노동의 가치를 대체하는 요소로 기능한다는 뉘앙스를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시선을 뜻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줄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 즉, ‘예쁜 여직원’은 명사의 표면적 번역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핵심 의미인 ‘외모를 이유로 여성을 꽃 역할에 배치한다’라는 차별적 서사가 완전히 재현되지는 못하고, 표현 강도가 약화되었다.

러시아어에서도 직업명에 성별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어의 직업명은 배우(актёр)-여배우(актриса), 교사(учитель)-여교사(учительница)처럼 성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¹⁾ 러시아어의 여성형 직업명은 한국어처럼 성별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문법적 성 구별 체계에 따라 직업명 구성 방식의 일부로 수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어에서도 여성형 직업명은 여성성과 연계된 직업군에서 더 빈번히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남성형 명칭이 기본형으로 유지되고 있다(이명자 2004).

두 번째 사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대사의 ‘여배우’라는 표현이 러시아어로 ‘여배우(актриса)’로 번역된 것은 한국어 원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문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예시로, 여성 배우가 직업적 특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의미를 러시아어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직업명 앞에 ‘여’를 붙이는 표현이 러시아어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성별을 특별히 드러내는 표현은 러시아어 번역 과정에서 중립화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는 번역자가 성차별적 의미를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으나, 원문의 뉘앙스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서 양성 불평등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문과 번역문 간의 의미 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3. 여성의 성적 및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성차별적 언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의 외모나 성적 매력을 통해 여성을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왜곡할 수 있다.

성적 및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이 담긴 대사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수집되었다. 표 5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1) 과거 러시아어에 의사(врач)-여의사(врачиха)와 같이 남녀 구별이 되는 직업 명사가 존재했지만,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표 5. 성적 및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의 번역 사례

ST	TT	BT
재는 그냥 예쁜 얼굴로 다 되는 줄 알아.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Она думает, что ей всё позволено благодаря её красоте.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 덕분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몸매로 무슨 일을 하겠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С такой фигурой, что она может сделать?	이런 몸매로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넌 여자애가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녀?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Почему ты, девушка, так вызывающе одеваешься?	왜 너는, 여자애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니?
그 애는 그냥 남자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Она просто любит тусоваться с парнями.	그녀는 그냥 남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대사, “재는 그냥 예쁜 얼굴로 다 되는 줄 알아”라는 표현은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며, 그녀가 자신의 외모를 통해 모든 것을 얻으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표 5). 번역문에서도 이 의미가 유지되어 ‘예쁜 얼굴’이 ‘아름다움(Красота)’로 번역되었고, 외모가 사회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원문의 의미를 번역에서도 거의 변화 없이 전달되었다.

두 번째 대사, “이런 몸매로 무슨 일을 하겠어?”라는 표현은 여성의 신체적 능력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 러시아어 번역에서도 ‘이런 몸매로(С такой фигурой)’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체적 평가가 여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며, 두 언어가 공통된 표현 전략을 취한다.

세 번째 대사, “넌 여자애가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녀?”라는 표현은 여성의 옷차림을 비난하며 성적 매력을 강조한다. 번역문에서도 ‘도발적으로 옷을 입다(вызывающе одеваешься)’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비난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자애’라는 호칭이 가진 어감은 러시아어 번역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의미가 약화되었다.

마지막 대사, “그 애는 그냥 남자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라는 표현은 여성을 한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남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시선을 드러낸다. 러시아어 번역인 ‘남들과 어울려 다니다(тусоваться с парнями)’ 역시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문제라기보다, 남성과 함께 행동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문에는 여성이 성적 대상화 혹은 가십의 대상이 되기 쉬운 존재로 취급되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위의 사례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성적 및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될 때도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성적 대상화와 신체적 비하 표현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언어 모두 성 역할 인식과 신체적 평가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번역에서도 원문의 성적 대상화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재현되었다.

4.4.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

4.4.1. 남녀 구분 호칭의 차이

한국어에서는 남녀를 구분하는 호칭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남매(男妹)’, ‘부모(父母)’, ‘남녀노소(男女老少)’, ‘자녀(子女)’와 같이 남성을 가리키는 의미가 앞에 오는 단어가 상당수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될 때도 유사한 구조로 전달되지만, 성차별적 의미가 중화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남녀 구분 호칭의 번역 사례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나타난다(표 6).

표 6. 남녀 구분 호칭의 번역 사례

ST	TT	BT
그러니까... 남매군요! 유희연, 유지혁.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Значит, она ваша сестра! а! Ю Хи Ён. Ю Чжи Хёк.	그 말은 여동생이군요? 유희연, 유지혁.

한국어의 ‘남매’는 단어 구성상 남(男)’이 앞에 위치함으로써 남성을 중심에 두는 어순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러시아어에는 형제자매 관계를 한 단어 안에서 성별 서열을 드러내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관계명(‘형/오빠’, ‘여동생’, ‘남동생’)로 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번역 과정에서는 ‘남매’라는 어휘가 지닌 성별 표기 순서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여동생(сестра)’으로만 번역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원문에 내재된 남성 중심적 호명 방식은 러시아어 번역에서 자연스럽게 중화되거나 소실되었다.

4.4.2. 결혼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 표현

결혼 관련 성 고정관념 표현의 번역 사례는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나타난다(표 7).

표 7. 결혼 관련 성 고정관념 표현의 번역 사례

ST	TT	BT
어느 집안으로 시집갈는지 아주 불 보듯 뻔하다, 뻔해. (내 남편과 결혼해줘, 2024)	Очевидно, в какую семью она попадёт, выйдя замуж. Всё яснее ясного.	어떤 가정을 결혼해서 꾸릴지 보이네. 아주 명확하게 보여.

한국어에서 여성이 결혼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시집가다’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러시아어에서도 여성이 결혼할 때 사용하는 ‘выйти замуж’는 ‘남편을 향해 나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슷한 맥락이다. 두 언어 모두 결혼을 ‘여성이 이동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한다. 한국어가 ‘여성이 남성의 가정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러시아어는 ‘여성이 남편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해당 사례는 핵심 의미가 효과적으로 번역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4.3. 가정 내 성 역할 고정관념 표현

한국어에서 아내를 ‘내(內)’에 비유하여 집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정 짓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내외(内外)’는 남편과 아내를 각각 집 안팎의 일로 나누어 정의한다. 이러한 표현은 러시아어로 번역될 때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소 약화된다. 가정 내 성 역할 고정관념 표현의 번역 사례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타난다(표 8).

표 8. 가정 내 성 역할 고정관념 표현의 번역 사례

ST	TT	BT
맞아? 그러니까 네가 ‘내’야? 도깨비 내외? (도깨비, 2016)	Правда? Тогда ты его невеста? Невеста токкэбби?	정말이야? 그럼 네가 그의 약혼녀야? 도깨비 약혼녀?

드라마 <도깨비> 대사에서 사용된 ‘내’는 아내를 집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표현으로, 남편의 역할 구분이 언어적으로 반영된 사례다. 그러나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약혼녀(невеста)’로 처리하면서 공간적 의미나 역할 분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러시아어에는 아내를 ‘집 안에 속한 존재’로 규정하는 어휘적 장치가 없어서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이 중립화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번역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국어 대사가 담고 있던 ‘여성이 가정 내부에 위치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은 러시아어 번역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원문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번역 과정에서 약화되거나 의미가 단순화되었으며, 한국 사회에 내재한 성별 인식이 러시아어권 시청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 어렵다.

4.5. 양성 불평등 표현의 번역 전략과 감정·의도 전달 양상

본 절에서는 앞서 4.1절부터 4.4절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한-러 팬 번역에서 사용된 번역 전략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양성 불평등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중립화, 생략, 약화, 음차, 의미 유지의 다섯 가지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째, 중립화 전략은 성차별적 의미가 있는 명사를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직업명 등으로 번역하는 전략이다. 영화 <기생충> 대사 속 ‘아줌마’는 대표적인 에이 지즘과 성차별이 내포된 명사로, 다수의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가사 도우미(домо правительница)’로 번역되었다.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 ‘아줌마’에 담긴 원작의 비하적 어조와 계급·권력 관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선은 중립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다.

둘째, 차별적 표현 자체를 번역에서 제거하는 생략 전략이 사용되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대사 속 ‘계집애’와 같이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생략하고, ‘불여시’를 ‘영악한 여우(хитрая лиса)’로만 번역하며 원문이 가진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특히 ‘여우’에 대한 부정적 의미는 러시아 문화권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하므로, 번역가는 한국어의 문화적 비유를 러시아어 화자가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을 사용했다. 생략 전략을 취함으로써 시청자가 덜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작의 차별적 표현을 온전히 재현하고 수반되는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약화 전략은 노골적인 비하나 조롱의 어감을 완화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방식이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대사 “이래서 계집애들은 3일에 한 번씩 밟아줘야 한다니까”라는 과도하게 폭력적인 표현이 러시아어 번역에서 ‘계집애들’이 러시아어로 ‘여성(женщина)’으로 옮겨져 일반적인 3인칭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밟아줘야 한다니까’라는 표현은 ‘고쳐줘야 한다(нужно ставить на место)’로 번역되어 원문의 폭력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극중 인물의 성차별적 사고와 공격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넷째, 음차 전략은 한국어 고유 표현을 소리에 따라 러시아어 문자로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대사에서 ‘아줌마’가 러시아어 문자 ‘аджумма’로 음차 번역된 사례가 그 예다. 일종의 이국화(foreignization) 번역 전략으로서 원문 고유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시청자는 해당 표현이 지닌 미묘한 감정적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의미는 모호해지고, 등장인물 간 관계 설정, 계급 위계, 양성 불평등 표현의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의미 유지 전략은 원문과 최대한 비슷한 뉘앙스를 유지하며 번역하는 방식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및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은 한국어와 러시아어 모두 존재하기에 번역에서도 원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다. 또한, 드라마 <7인의 탈출>의 대사에서 ‘여편네’를 ‘정신 나간 여자(чокнутая грывза)’로 번역된 것은 원문의 성차별적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한 예라 할 수 있다. 번역문을 통해 원작의 부정적 감정, 갈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특히 러시아어에도 존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비하 표현을 사용해 러시아어 시청자 역시 성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인식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어의 양성 불평등 표현의 한-러 팬 번역에서 사용되는 번역 전략은 대부분 차별적 표현의 어감이 약화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 전략 선택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원작이 의도한 감정이나 사회적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미디어 콘텐츠 번역가는 차별적 표현이 작품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감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번역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용되는 차별적 표현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별적 표현들은 번역 과정에서 의미 유지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중화되거나 왜곡되었다. 특히 ‘아줌마’와 같은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을 낮춰 부르는 차별적 의미를 지니지만,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아줌마’는 대체로 ‘가사 도우미’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원문의 차별적 뉘앙스를 상쇄시켰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 역시 번역 과정에서 차별적 의미가 소실되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웠다. ‘계집애’와 같은 표현은 대부분 중립적인 단어로 번역되었으며, ‘여편네’는 ‘грымза’와 같은 비속어로 번역되어 원문과는 다른 뉘앙스를 전달했다. 이는 번역가들이 차별적 표현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한국 내 차별적 표현 사용 실태나 인식 변화에 머물렀던 데 비해, 한-러 팬 번역이라는 실제 번역 환경에서 표현의 처리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성차별적 언어가 번역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약화되거나 변환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러시아어권 팬 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영어 중심 번역 연구에서 벗어나, 한류 콘텐츠가 소비되는 실제 언어권에서의 번역 현실과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러 번역학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번역 실무와 교육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팬 번역은 빠른 콘텐츠 확산에 유리하지만, 차별적 표현처럼 맥락 의존적 의미가 강한 언어 요소를 다룰 때 원문 의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팬 번역 커뮤니티 내에서 용어 기준, 번역 지침 공유, 상호 검토 체계 마련과 같은 자율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번역 정확성과 문화적 맥락 재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차별적 표현은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를 반영하므로, 번역가는 단순한 언어 대응을 넘어 표현이 작동하는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을 2013년 이후 방영된 일부 인기 드라마와 영화로 선정함으로써, 더 이른 시기의 번역 경향이나 다른 작품의 번역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팬 번역은 빠른 배포를 우선순위로 두고 번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번역이 일관되지 않고, 번역 품질 검증이 제한적

이었다. 셋째, 내용 분석과 담화 분석을 병행하였으나, 분석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번역가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크게 의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이은아 2022).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장르와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하고, 공식 번역과 팬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더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차별적 표현은 원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고, 번역에서 이런 맥락이 잘 재현될 수 있도록 팬 번역 커뮤니티 내 번역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팬 번역은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번역 활동으로, 콘텐츠의 신속한 확산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빠른 배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번역의 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 오류가 발생하거나 차별적 표현의 의미가 약화된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팬 번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번역 지침을 공유하거나 번역 오류를 상호 검토할 수 있는 참여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팬 번역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팬 번역의 장점인 빠른 콘텐츠 공유와 수준급의 번역 품질 확보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번역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완성도 높은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검토와 상호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차별적 언어의 다른 범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차별적 표현은 성별 외에도 연령, 계층, 지역, 직업, 외모 등 다양한 범주에서 나타나며, 번역 과정에서 특정 범주의 차별적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약화·생략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식 번역과 팬 번역을 동시에 비교하는 연구 역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번역 품질은 번역가의 전문성, 번역 목적, 번역 검수 체계 등을 고려한 번역 전략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비교 연구를 통해 차별적 표현의 번역 전략을 분석할 수 있고, 향후 번역 지침 마련 및 번역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2020).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7(1): 45-70.
- 마승혜·김순영. (2021). 「북한 소설 [고발] 영역본에서 여성 재현 양상 변화 분석」. 『인문사회 21』 12(5): 2731-2742.
- 박지영. (2022). 「웹툰과 신조어 번역 전략- 웹툰 ‘여신강림’을 중심으로 -」. 『T&I REVIEW』, 12(1), 53-74.
- 서유경. (2020). 「러시아 영화 자막의 중역 문제 고찰」. 『통번역학연구』, 24(1): 97-126.
- 안희연·김보영. (2021). 「번역불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문화 관련 어휘 번역에 관한 고찰」. 『아랍어와 아랍문학』 25(3): 77-104.
- 오유진·장민경·박희진. (2024). 「초중고생의 차별과 혐오표현 실태: 서울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경험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8(1): 24-56.
- 이가현. (2022).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비속어 번역 양상과 격식성 변화」. 『T&I REVIEW』 12(1): 121 - 142.
- 이명자. (2004). 「러시아어 직업명 형성과 문법적 불균형」. 『언어과학연구』 28: 161-178.
- 이은아. (2022). 「혐오표현과 젠더 차별 인식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821-836.
- 이주희. (2021). 「의미론 개론서에 나타난 여성 차별 언어 연구」. 『어문학』 152: 63-96.
- 정젤나·김영국. (2024). 「성적 미지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을 경험한 직장여성의 분노반추, 정서 표현 양상성과 반생산적 업무행동」. 『서비스경영학회지』 25(1): 157-176.
- 조경. (2018). 한·중 여성 차별 표현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태린. (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388-410.
- 허용·박은정. (2020).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복합적 구성의 양태 표현 연구-역번역문과 자기수정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7: 345-369.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보고서]

- 송현정·김성화·서용성. (2020).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기: 사법정책연구원.
- 조태린. (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제12차)』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인터넷 자료]

- 기생충. 2019년 5월 30일 개봉.
- 내 남편과 결혼해줘. tvN. 2024년 1월 방영.
- 눈물의 여왕. tvN. 2024년 3월 방영.
- 도깨비. tvN. 2016. 2016년 12월 방영.
- 별에서 온 그대. SBS. 2013년 12월 방영.

7인의 탈출. SBS. 2023년 9월 방영.

Dorama <https://7.doramatv.ru/> (2025.12.12. 검색)

Newdeaf <https://newdeaf.ru/> (2025.12.12. 검색)

VK(ВКонтакте) <https://vk.com/> (2025.12.12. 검색)

Zetflix <https://nu.zetflix-free.top/> (2025.12.12.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7 November 2025; revised on 5 December 2025; and accepted on 15 December 2025.

Author's email address

jooeunk0620@gmail.com

About the author

Jooeun Kim is a Ph.D. candidate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iteration norms, Korean–Russian translation, and Korean–Russian interpreting.